
정보처리기사 실기 시험과 SW 공모전 결과물 제출 마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글 작성 시작 날짜(2022년 7월 23일) 기준으로 내일이고,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7월 23일, 거의 한 달 전부터 가기로 계획했던 서울 코믹월드에 다녀왔다.

7월 서울코믹월드 출격 공지!



돈미니 · 1만 팔로워

2022.06.01. 16:34 | 8,984 읽음

안녕하세요!

원래 저번주에 올라가야 했던 공지인데
저번주는 공지가 하나 더 올라갔던 바람에
이번 주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지 내용은 무어냐!



7월 23~24일 서울코믹월드 출격!

장소는 일산킨텍스!

라는 소식입니다.

블루아카이브 굿즈를 판매할 예정이고
일본 서버 작가이신 **순수한불순물**님,
몰?루의 창시자이신 **코코넛콘**님과 함께합니다.

커여운 굿즈 준비해놓을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이 굿즈가 가지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오프라인 행사로 만나뵙게 되겠네요!
매우 떨립니다.
늘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잘 부탁드립니다!

<https://naver.me/5PZvOnNp>

가게 된 이유는 단순하다. 네이버 포스트에서 시작해 현재는 버프톤에서 겜덕툰이라는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돈미니라는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이 분이 서울 코믹월드에 온다고 하셔서 팬사인회 간다는 느낌으로 갔다. 게임과 밈에 상당히 해박하신 분이라 만화가 엄청 재밌다. 밈으로 따지면 게임 계의 연애향명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다른 작품 이랑 비교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

서울 코믹월드를 이전에 한 번 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벌써 그게 10년 전쯤의 이야기다. 그땐 내가 이쪽 관련해서 아는 게 롤, 유희왕 이 정도뿐이라 가서 롤 코스어랑 사진 찍고 유희왕 필통 사 왔던 기억이 난다. 몰라도 그냥 이런저런 부스 구경하며 신기해하고 그랬다.

이전과 달리 이번엔 나름 오타쿠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서울 코믹월드에 가면 지난번보다 좀 더 제대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갔다. 내 기준에서 서울 코믹월드에서 다뤄지는 만화나 게임들은 보통 주변 사람들에게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살짝 어색해지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거나 인지도가 낮거나 그런 것들이 다수다. 보통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마무스에 이야기를 꺼내면 반응이 '말을 의인화해서 여자 아이돌처럼 키워요? 아...' 이런 느낌이다. 스파이 패밀리, 언더테일, 보컬로이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테고. 절대 해당 문화를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다. 애초에 나도 향유하고 있는 문화를 내가 무시할 리가... 아무튼 그런 나름의 기준을 세워봤을 때 나는 꽤나 여기서 다뤄질만한 것들을 많이 안다고 자기 전까지는 생각했다.

이번 서울 코믹월드는 일산 킨텍스 1전시장 4홀에서 열렸다. 같이 간 친구가 10시 반 입장인 행사를 10시까지 가고 했을 때 사실 너무 일찍 가는 것 아닌가 싶었다. 내가 기억하는 서울 코믹월드는 웨이팅 없이 코스어들과 사진 찍고 안에서 굿즈 몇 개 구매하고 가는 행사였기 때문이다. 사람이 많긴 많은데, 행사장이 웨이팅을 할 만큼 붐비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화역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코스어들과 사람들이 굳이 길 찾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르르 몰려가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믹월드 입장권은 7천 원이다. 입장 대기장소 들어갈 때 한 번, 안에서 두 번 검사한다. 지나가다 받은 부채로 더위를 식히며, 넉넉잡아 한 시간 정도 기다릴 각오를 했다. 입장 대기장소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서울 코믹월드 입장을 기다리는 어마어마한 인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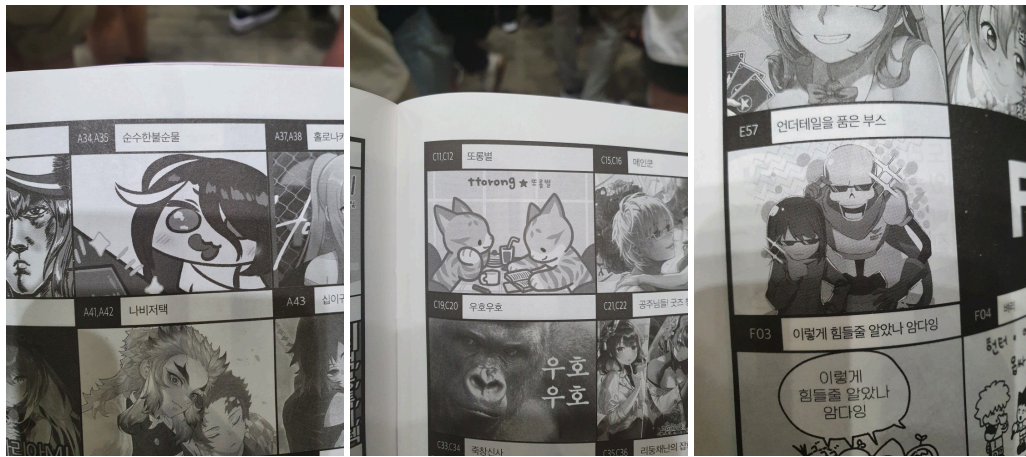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사진에 인파가 충분히 담겼는지 모르겠는데, 30분 전에 입장한 것인데도 이랬다. 키친마
이아르 웨이팅도 서서 기다린 건 1시간 조금 넘게였는데, 서울 코믹월드 입장하려고 2시간 넘게 웨이팅을 할 줄은 전
혀 몰랐다. 한국 덕후들의 어마어마한 저력을 느꼈다. 이렇게 인기 많은 행사인 줄 몰랐는데, 이 문화를 은연중에 무
시하고 너무 가볍게 봤던 것은 아닐까 혼자 반성하고 그랬다 ㅋㅋ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맞는 말인데, 그래도 기다리는 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 중간에 오른쪽 사진
의 비상구 픽토그램 보면서 정말 탈출하고 싶었다. 사람이 미어터져서 다른 사람들과 몸 부딪히고, 덥고, 다리와 허리
도 아프고... 실제로 중간에 쓰러져서 실려나가신 분도 있었고, 기다리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도 있었다. 그래도 나는
기다리는 동안 같이 얘기할 친구가 있고 우마무스에 육성하며 시간 때울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근데 사람이
많아서 데이터가 잘 안 터지긴 했다. 우라라 육성하는데 옆에서 보시고는 도주 우라라를 키웠던 자신의 옛날이야기
를 일행에게 하시던 분이 계셨다. 일행분 반응이 딱 아까 앞에서 말했던 보통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의 반응이
였다 ㅋㅋ



오랜 기다림 끝에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 행사장은 줄 설 때보다는 사람이 덜 붐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만원
전철 같았다. 사람이 많아서 참가팀 부스를 제대로 보기 힘들었다. 부스 사진을 조금 찍어두긴 했는데, 촬영 금지라
고 붙여둔 곳도 있었고 받은 팸플릿에도 무단 촬영과 무단 투고, 판매, 유통 불가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서 그냥 오른
쪽 사진 하나만 올린다. 참고로 팸플릿은 줄 서는 동안, 그리고 행사장 입구 쪽에서 팸플릿을 받을 수 있었다.



팸플릿에는 부스 배치도, 참가팀 리스트, 구매 리스트 같은 유용한 정보들이 담겨 있어 부채 겸해서 하나 들고 다니면 좋다. 돈미니 님이 있는 부스는 A34, A35였다. 도롱별은 친구 인스타 아이디랑 비슷해서, 언더테일을 품은 부스는 그냥 웃겨서 찍었다.

여기 온 목적이었던 돈미니 작가를 보러 순수한불순물 부스에 갔는데, 처음에는 위치를 잘못 알고 A26에서 멍 때리고 줄 서있다가 뒤늦게서야 알고 다시 갔다. A34 쪽으로 가기까지 진짜 엄청 긴 줄이 하나 있어서 뭐 대단한 부스 하나 왔다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가려던 부스였다. 돈미니 작가가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 공식 4컷 만화 작가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블루 아카이브가 이렇게 인기 많고 유명한 게임인 줄 몰랐다. 무슨 게임인지도 모르고 굿즈 사지도 않을 거면서, 기다려서 돈미니 작가한테 사인받고 사진 찍는 건 기다리는 팬들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작가님으로 추정되는 분 얼굴만 보고 갔다. 애초에 기다릴 자신도 없었다. 작가님은 오너 캐릭터와 달리 흑발이시고, 마스크로 미모를 감추고 계신 것 같았다.

작가님 부스를 떠난 뒤 친구와 다른 부스들을 보러 다녔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스 돌아다니는 게 만차 전철 첫 칸과 끝 칸 왕복하는 기분이었다. 안 그래도 아는 캐릭터 몇 없는데 마땅히 끌리는 것이 없어서 따로 굿즈를 사지는 않았다.



팜플릿을 보니 로비를 포함한 행사장 내부 취식은 불가하고, 전시장 외부에서 취식 후 재입장해야한다고 한다. 난 그것도 모르고 행사장 내부에서 소떡소떡과 음료수 팔길래 사서 그나마 좀 한적했던 피크닉 존에서 먹었다. 안에서 팔기도 했고 남들도 돌아다니며 먹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가게 된다면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이렇게 입장하기 힘든데, 외부에서 취식 후 재입장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였다.



행사장 내외로 우마무스메, 스파이 패밀리, 아이언맨, 어몽어스 등 다양한 캐릭터 코스어 분들이 계셨다. 같이 사진 찍을 만한 코스어 분을 못 찾아서 그냥 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토카이 테이오 코스어 분을 보고 갑자기 사진 찍고 싶어져서 사진 촬영을 부탁드렸다. 코스어 분 얼굴은 올려도 되는지 허락받는 것을 깜빡해서 모자이크 처리했다. 그래도 팬 수 천만 될 때까지 키우는 동안 캐릭터에 알게 모르게 애정이 생겼었나 보다. 코스어 분이 코스프레를 잘 하시기도 했다! 사진을 찍고 인근에서 밥 먹을까 했는데, 친구도 나도 너무 피곤해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여담

1

글 내내 이야기했지만 이번 서울 코믹월드에는 사람이 정말 많았다. 주최 측이 예상치 못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입장권을 너무 많이 발매한 것이 아닌가 싶다. 행사장 안에서 앉거나 쉴 곳이 거의 없어서 계속 서있다 보니 힘들어서 막바지에는 거의 정신을 놓고 있었다. 행사장 최대 입장 가능 인원수를 제한하거나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커뮤니티에는 냄새가 심해서 힘들었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나는 생각보다 크게 못 느꼈다. 조금 낡은 것 같기도 한데 마스크 써서 코가 둔감했거나 운이 좋았던 게 아닌가 싶다. 설마 나한테서 냄새가 났던 건 아니었을까 해서 좀 무서웠다.

3

오래 서서 그런지 허리가 그렇게 아팠다. 평소에 나쁜 자세로 앉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았다. 글을 쓰는 지금은 최대한 바른 자세로 앉아 있으려 하고 있다.

4

[후기] 서코 처음 간 후기
Wojtek | 2022.07.23 19:36:57

조회 2542 | 추천 42 | 댓글 26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행사 가보니까 두드렸음.

조금 신기했던 게, 나는 코스프레도 안 하고 그냥 평소처럼 입고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다들 사진 찍자고 외쳤던 거임. 그냥 사진 찍는 거 자체가 문화인 거 같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아무한테나 사진 찍어 달라고 했음.

남들 사진 찍는데 뒤에 가서 갈락이도 해보고 꽤 재밌었음. 그리고 휴먼 부스 앞에서 사진 찍어주다가 실수로 팔꿈치로 어떤 코스어분 건드린 거 같은데, 내 팔꿈치에 달은 건지 아닌지 못 봐서 뭐라고 말할지 몰라서 사과를 못 했음. 되게 미안했음.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seko&no=9888&exception_mode=recommend&page=

1

1호선 투구남이라고 알려진 분이 계신데 그분과 옷차림새가 비슷한 분이 계셨다. 친구한테 같은 사람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아닐 거라고 해서 같이 사진은 따로 안 찍었는데, 서울 코믹월드 마이너 갤러리 들어가 보니 그분이 맞았다 ㅠ

5

이제 어른이라고 신분증 검사 받고 어덜트존도 가봤는데, 생각보다(?) 별 거 없었다. 지킬 거 다 지키고 있었다.

6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이제 코믹월드를 가거나 누군가에게 가라고 권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애초에 권하지 않아도 이쪽 문화에 푹 빠지면 스스로 찾게 될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사람이 많아 관람이 어려웠던 것도 이유 중 하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나름 이쪽 문화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행사 돌아다니는 내내 오타쿠가 되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제대로 즐기기가 힘들었다. 나랑 감성도 살짝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래도 이런 행사가 있어서 게임, 만화, 애니, 캐릭터 콘텐츠 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장점은 부각해서 더 나은 행사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후기 끝!